



NH농협은행 익산시지부, 인재 육성 장학금 전달

익산시에 지역 학생들의 미래와 꿈을 응원하는 따뜻한 나눔이 전달됐다.

NH농협은행 익산시지부(지부장 진현욱)는 30일 (제)익산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정현을)에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익산시에 지역 학생들의 미래와 꿈을 책임질 학생들이 꿈을 펼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성장하는 금융기관으로서 교육 발전과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우협회 남원지부, 춘향장학재단에 장학금 기탁

남원시는 전국한우협회 남원지부(지부장 신춘호)가 30일 춘향장학재단에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남원시지부는 지역 사회 발전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춘향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꾸준히 기탁해 왔으며, 올해로 6년째 나눔을 이어오며 누적 기탁액은 총 1천만 원에 이른다.

신춘호 지부장은 "남원 지역 인재 양성과 장학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생들을 위한 나눔에 동참할 수 있어 뜻깊다"라고 밝혔다.

춘향장학재단 관계자는 "장기간 변함없는 관심과 나눔을 실천해 주신 전국한우협회 남원지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금지면 디딤돌 청년회, 희망나눔 후원 물품 전달

남원시 금지면 관계자는 디딤돌 청년회가 연말을 맞아 관내 25개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희망나눔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디딤돌 청년회는 2024년부터 경로당에 후원물품을 기부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리본 25박스, 굴 25박스, 커피 25박스 등 총 17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했다.

또한 금지면 이장협의회에서 현금 100만원, 금지면 임촌마을 최만기 이장이 10Kg 쌀 54포, 박병희 씨는 손수세미 50개를 기탁했다.

진안군, '작지만 강한 교육도시' 구축 박차

총 26억 투입 · 전방위 맞춤형 교육지원 정책 추진... 지역인재육성 기반 마련

진안군은 농촌지역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통해 지역 인재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군은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 인재 양성을 목표로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와 진안교육지원청에 총 26억 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며 전방위 교육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교육 참여 확대와 학습 환경 개선, 교육 만족도 향상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2025학년도 서울 소재 주요 대학 진학자 수는 7명으로 전년도 2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도 2023년 57.4%에서 2025년 72.5%로 상승하는 등 지역 내 진학 기반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진안군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진로·진학 컨설팅과 학습 지원 사업을 확대하며 교육정책의 내실화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개인별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을 중점적으로 운영해 학생 1인당 최대 4회의 심층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학습 전략과 입시 전략, 학생부 관리 등을 연계한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설계 역량을 높이고, 수능 이후 면접 컨설팅까지 지원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방학 기간을 활용한 학습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중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습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습 유형 진단과 동기 부여, 자기주도 학습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여름방학 사탐·과탐 집중 특강을 개설해 수능 대비 핵심 과목 학습을 역량을 효율적으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초등학생 대상 진로캠프, 중·고등학생 대상 대학 캠퍼스 투어, 학부모 대상 교육 아카데미 등을 운영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이해도와 학습 동기를 높이고 있다.

진안군은 농어촌 특별전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원도 지속 강화하고 있다. 점형별 자격과 특징, 준비 전략 등에 대한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중학교 단계부터 체계적인 학생부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원어인 화상영어, 주말 스포츠 체육 프로그램,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형 교육을 무료로 운영해 사교육 부담 완화와 역량 개발을 돕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촌지역 학생들이 교육 환경의 차이로 불리함을 겪지 않도록 기초 학습부터 진로·진학까지 단계별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안중학교 학생들, 이웃돕기 성금 기탁 '훈훈'

부안중학교에서는 부안군청 사회복지과를 최근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29만1,000원을 기탁했다.

부안중학교가 개최한 동아리발표회 부스에서 어묵과 떡볶이를 판매한 수익금으로 학생들이 수익금 사용에 대해 자발적으로 논의한 끝에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기탁을 결정한 것이다.

한서현 교사는 "학생들이 작은 실천이지만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모았다"며 "학생들이 나눔의 의미와 공동체 의식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사회복지과 진춘이 팀장은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 사회에 큰 힘이 되고 감사하다"며 "학생들의 소중한 마음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군산 중앙여고서 'JB인문학 강좌' 성료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 지역 청소년들과의 소통을 위한 인문학 강좌를 열었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 후원으로 운영되는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은 지난 29일 군산 중앙여자고등학교에서 박주정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선생 박주정과 707명의 아이들'을 주제로 '2025 JB인문학 강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박주정 교수가 교단에서 오랜 기간 학생들과 함께하며 만난 707명의 아이들과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성적과 결과 중심의 교육을 넘어 사람을 먼저 바라보는 교육의 의미를 학생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에서 박 교수는 아이 한 명 한 명의 삶과 마음에 귀 기울여 온 교사로서의 경험을 진솔하게 풀어내며, 진로와 인간관계, 성장 과정에서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학생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끝까지

지 결을 지켜주는 어른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는 큰 공감을 얻었다.

강연을 마친 박 교수는 "정답을 빨리 찾으려 하기보다 스스로를 이해하고, 실패와 고민의 시간도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이길 바란다"며 "누군가와 비교하지 말고 각자의 속도로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당부했다.

강좌에 참여한 한 학생은 "진로와 성적에 대한 부담으로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의 삶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JB인문학 강좌'는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 매년 운영하는 대표적인 문화·교육 지원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110회에 걸쳐 3만2천483명의 도내 학생들이 참여했다. /오상근기자

청용초 서연우 어린이, 이웃돕기 성금 30만원 기탁

청용면 구고마을에 거주하는 서연우(청용초 5학년) 어린이가 지난 29일 청용면사무소를 찾아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3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에 성금을 기탁한 서연우 어린이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매년 돼지저금통을 기탁하는 등 어린 나이임에도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여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기탁금은 공동모금회에 전달되어 면내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서연우 어린이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용돈을 모았다"며 "나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전했다. /임실=전충영 기자

김제 요촌동 지사협, 무료급식소서 매월 봉사활동

김제시 요촌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만중)위원들이 지난 29일 '전국천사 무료급식소' 전북 김제점 을 방문해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은 지사협 회원 11명이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기쁜 마음으로 천사무료급식소를 방문한 320명의 어르신들이 원활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식사 안내, 배식, 설거지와 정리정돈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한형준 위원은 "매월하는 이 봉사가 나에게 큰 즐거움이다. 더 많은 나눔과 봉사로 살기 좋은 요촌동이 되도록 조금이라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Table with subscription information for Jeonju Maeil newspaper, including contact numbers and prices.

Large advertisement for weight loss with text: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and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